

---



---

“(로오라는) 침대에 파묻혀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인) 크리스가 그리워서 뿐만이 아니고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소중한 가정과 생활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녀는 광장 근처 거리에 자리잡은 조용한 그들의 저택을 그려 보았다. 하얀 대리석으로 된 넓은 저택이었다. 내부엔 대리석으로 꾸며 놓은 골마루가 있었고 대리석 층계가 있었다.”

“그녀(로오라)의 아름다움은 황금빛처럼 찬란한 것이었다. 순애 자신은 그것에 굴복했고 그녀의 힘을 인정했다. 자신의 우아함과 순종적인 성격은 그(현재 로오라의 남편)를 붙들 만한 힘이 없었을 것 같았다. 아마도 그렇게 자유롭고 거만하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미국의 남자들이란 오직 성격이 강인한 그네들 나라의 여자들이나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내들은 깊이가 있고 지속성이 있는 평화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전투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았다(Buck; 141).”

“나의 말년에 과거를 돌아 보았을 때는 이러한 폐해는 관료주의적이고 전제적인 우리의 정치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더 진보적이고 지속성 있으며 계몽된 정치 체제를 원하였다(Buck; 56).”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나는 이러한 관습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자손들이 이런 나의 이성에 증인이다.”



‘여자끼리는 무어라도 통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



“그녀(로오라)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우연히 그녀의 시선은 화분에 심겨진 조그만

---

오얏나무로 갔다. 꽃이 시들고 있었다. 그녀는 화분의 흙을 만져 보았다. 말라서 부서졌다. 그녀는 핸드백을 놓고서 목욕실로 들어가 유리 컵으로 물을 떠다가 화분에 뿌렸다.”



[http://www.reviewsofbooks.com/red\\_queen/](http://www.reviewsofbooks.com/red_queen/)

---

돌아온 사람들

펼 벉 평전

Cold War Orientalism

The China Mystique

*The Red Queen*

*Embracing the East*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ume 6